

국정포커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력 (1990) 미국 코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83) 서울대학교 무역학 학사

경력 (2022~현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9~2020)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15~2022) 글로벌교육재정위원회 위원
(2014~2018)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2010~2013)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2009~2010)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2008)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2004~2008) 제17대 국회의원
(2003~2004)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육개혁연구소장
(2001~200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
(2000~2001)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편집위원
(1998~2022)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
(1996~1998) 노동부 고용정책전문위원회 위원

올해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방향은?

우리 사회는 △인구감소 △공교육 위기 △지역소멸 등 여러 사회 난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난제들의 근원은 교육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① 세계 최고의 국가책임 교육·돌봄, ② 새학기 교육현장 전면 전환 ③ 대학개혁으로 역동적 지방시대 견인 등 3대 추진방향에 따라 10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되는데,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교실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건지?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 개선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돌봄체제에서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으나, 앞으로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우선지원하고, 지원대상을 연차별 확대하여, '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늘봄학교에서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2시간 무료로 제공하고,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합니다.

▪ 초1학년 학교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의 예·체능, 사회·정서 등

앞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원하는 경우 매일 2시간씩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되는지?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성장·발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무료제공합니다. 올해 초1 예비학부모 대상 수요조사 결과, 체육, 문화·예술, 심리·정서 등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체육(44.9%), 문화·예술(39.3%), 심리·정서(10.2%), 디지털(4.8%), 기타(0.8%) 등

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초기 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2시간 무상 프로그램 외에도 학생이 희망할 경우, 늘봄과정(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을 추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5년부터는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 전국 확대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행정업무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더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먼저, 교육청 늘봄지원센터(172개)의 역할 강화를 통해 학교의 업무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내에서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늘봄지원실을 구축하고, 늘봄실무인력도 배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교사가 체감하는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교원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정책이 안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정포커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참고 2024년 업무추진 방향

비전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목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추진방향	중점과제	난제 해결
① 세계 최고의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①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 ② 0세부터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 추진	저출생 위기 대응
② 새학기 교육현장이 전면 바뀝니다!	③ 교원 을 강화 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혁명 실현 ④ 학교폭력 을 체계적으로 대응 하고 예방 ⑤ 학생 의 마음건강 을 최우선 지원 ⑥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지원	교육의 과도한 경쟁 완화
③ 대학 개혁으로 역동적 지방시대를 견인합니다!	⑦ 지역 과 대학 간일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 구축 ⑧ 청년 들의 성장 을 위한 기회와 투자 확대	지역 성장동력 창출
현안 과제	⑨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⑩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사교육비 경감 총력 대응	사교육 부담 대폭 경감



지원체계	정책 소통 활성화 및 데이터 개방·연계
-------------	-----------------------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떻게 달라지며 2024년 유보통합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영유아 기관에서 전체적인 상향 평준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취지입니다.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 기관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부족한 점을 적극 보완하여, 어느 기관이든 안심하고 만족하며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부처가 나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지원해 오다 보니, 이용 시간, 교육·보육의 질 등 기관 간 편차가 크고 지역의 학부모 선호도 차이로 인한 선택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올해 6월부터는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을 관장하면서 행정의 관리체제 통합, 기관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질적인 부분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모델학교를 선정·운영하여 유보통합을 통한 변화의 모습을 개별 기관 단위에서부터 구체화하고, 개선사항을 발굴·보완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출생·지역소멸 등 사회 난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에는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부총리님의 생각은?

저출생·지역소멸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각종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KEY가 유보통합, 늘봄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국가가 교육·보육·돌봄을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 유보통합과 늘봄학교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입니

다.”(’23.12.26. 제55회 국무회의)

-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생에 대응하려면 유보통합·늘봄학교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24.1.24. 교육부 주요정책 계획 보고)
-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24.2.5. 민생토론회)

정부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중앙 부처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고, 기존의 초등 방과후와 돌봄을 ‘늘봄학교’로 통합·개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교육부는 범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과 적극 협력하고, 한국행정학회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교권 보호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교육부는 그간 ‘교권 회복 종합방안’ 발표(’23.8.) 및 교권 보호 5법 개정(’23.9., ’23.12.)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어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제도개선 사항을 현장에 안착하고, 학교의 건강한 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1월부터, 지난 20여 년간 동결되었던 보직수당을 비롯하여 담임수당,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특수교육수당을 인상하고, 새 학기에 맞춰 아동학대 등 교권침해 상황을 원스톱으로 지

국정포커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원하는 직통번호(1395) 개통, 기관 차원에서 악성 민원을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응대 매뉴얼’ 배포,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적용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직급수당(7 → 15만원) △담임수당(13 → 20만원) △특수교육수당(7 → 12만원) △직급보조비(교장 40 → 45만원, 교감 25 → 30만원)
-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분쟁·소송 등을 전문가가 적극 지원

또한 3월 말까지 ‘교권 보호 5법’의 후속조치로 「교원지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 교권 보호 입법과 행정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 교원지위법 시행령 입법예고 : '24. 1. 12. ~ 2. 15.

앞으로도 교육 3주체와 직접 만나는 ‘함께 차담회’와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 등으로 학교현장과 함께 호흡하며 정책 완성도를 높여 나가 교권 회복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정책은?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 △피해학생 지원,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그간 교사들이 해 온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 및 교육적 해결,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23.9.~) 8개 시도 시범운영 → ('24.3.~) 17개 시도 전체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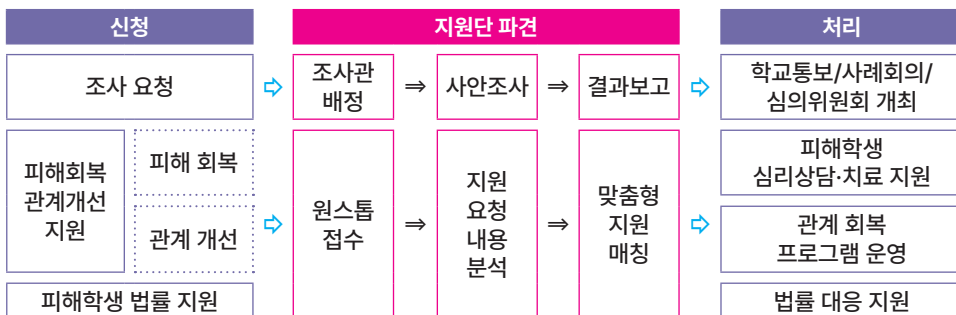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최근 학생들의 사회정서 및 마음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학교 현장에서도 위기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모든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보편적·예방적으로 증진하는 한편 위기에 처한 학생은 적기에 발견해 지원하겠습니다.

-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질병관리청) : ('17) 25.1% → ('22) 28.7%

이를 위해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전담하는 부서를 올해 최초로 신설(사회·정서성장지원과.

참고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구조



'24.1.1.~)하였고, 당장 새학기부터 상시적으로 위기학생 선별검사를 진행하여 조기에 치유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음EASY 검사'를 보급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마음건강이 우려되는 학생이 발견되면, Wee센터,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심리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예방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마음건강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기존엔 폭력 문제 대응 중심이던 위(Wee) 프로젝트의 기능을 '정신건강 지원'으로 확대·개편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는데 어떤 교과서일지? 교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핵심 기제로서 2025년 3월을 목표로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AI 등 첨단기술을 통해 학생의 학습과정을 진단·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사가 학생별 특성을 고려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교사는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모두를 위한 맞춤형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학생별 학습진단과 콘텐츠 추천을 바탕으로 수업을 보다 용이하게 설계하고, 이를 통해 지식 전달을 넘어 코칭(Coaching)을 통한 학생과 깊은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으며, 학생은 선생님의 세밀한 지도와 관심 속에서 전인적인 성장과 함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와 같은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해 올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내년 3월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될 수 있도록 개발사 대상 공공 콘텐츠를 제공하고, 보안인증 등 국가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 중입니다. 학교 현장과 밀접한 AI 디지털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개발 전·후로 현장교원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며, 아울러 원활한 AI 디지털교과서 운용을 위하여 올해 안에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을 대상으로 1인 1디바이스 보급을 완료하고, 학교 네트워크 정비 등 인프라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와 교사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잘 활용하여 교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교사의 인공지능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부터 학교단위까지 맞춤형 연수체계를 면밀하게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AI 디

국정포커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텔교과서 적용교원을 대상으로 역량 중심의 성장형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갈 리더그룹 대상 연수 및 학교 현장의 변화를 돕는 찾아가는 연수 등을 통해 모든 학교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취지는?

디지털 대전환, 빅 블러 시대에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과거와 크게 바뀌고 있으나, 그동안 학과 간 칸막이로 인해 학사 운영은 경직적이고, 학생들은 전공선택권을 제약 받아 전공과 진로 간 미스매치*, 사회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한계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직업과 전공이 불일치하는 비율은 39.8%(2022 통계청 사회조사)

전공자율선택제를 통해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에 따라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은 재학 중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기초 소양과 핵심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으며, 대학은 미래가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인재양성기관으로 혁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기회와 투자 확대를 위한 교육부의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교육부는 능력과 의지만 있는 청년들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학자금 지원(국가장학금 + 대출) 예산 총액 : ('23) 4.9조 원 → ('24) 5.1조 원

특히, 올해에는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1.7%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생활비 대출 확대, 대출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진행상황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등 지역 주체가 중심이 되는 교육개혁을 통해, 유아 돌봄부터 초·중·고 등 교육을 아우르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가 진행 중으로 각 지역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역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지역의 특성과 강점 등을 담아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교육 카르텔 혁파부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신지?

지난해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23.6.~) 및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안별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도 사교육 카르텔 혁파를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교육개혁 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안착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대학, RISE 체계가 정착되어 지역 내 고등교육의 발전까지 이어진다면 교육의 과도한 경쟁이 완화되고,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사교육으로 전가된 즉각적인 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연계하여 사교육 없이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늘봄학교 및 방과후 활동에 대학·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활발하게 참여하여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중 사교육 경감 선도모델을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로 지정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개혁 추진으로 올해 어떤 성과를 기대하시는지?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착실히 추진하여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으로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교실 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교육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과감히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역동적 지방시대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